

아프간 정부 인질 - 포로 맞교환 수용 불투명

■ 피랍 옛새째...협상 장기화 조짐

伊기자 납치사건과 요구 조건·진행 상황 유사 인질 수 많아 맞교환 논의 등 2주 이상 걸릴 듯

한국인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된 지 24일로 옛새째로 접어들어 이번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의 수감자 석방요구를 들어줄 지는 불투명해 사태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탈레반에 자국민이 인질로 잡혔다가 협상 끝에 풀려난 '이탈리아 모델'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아프가니스탄 남부 가즈니주(州)에서 지난 19일 한국인들이 단체 납치된 이후 사태 전개 상황이 지난 3월 이탈리아 기자가 납치됐을 때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의 대니얼 마스트로자코모 기자를 납치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이탈리아 군 철수뿐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의 탈레반 공격 중지, 카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탈레반 대변인 등 3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탈레반측이 요구하는 대로 탈레반 죄수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테러 조직과의 협상은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과 영국 정부를 의식하면서 속절없이 시간을 보냈다.

탈레반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탈리아 기자와 함께 납치한 현지 운전기사를 본보기로 살해하기도 했다. 이에 다급해진 이탈리아 정부는 모든 역할을 동원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설득, 결국 탈레반 죄수를 석방시키는데 성공했고, 이탈리아 기자도 풀려났다.

이번 사태도 이탈리아 기자 납치사건과 요구 조건부터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탈레반은 석방조건으로 아프가니스탄 주둔 한국군 철수와 함께 탈레반 죄수 23명 석방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납치사건이 발생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메시지를 직접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해 시간을 버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이탈리아 모델과 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총체적인 외교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 분석된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시민이 탈레반에 의해 피랍된 한국인 납치 사건을 다룬 아랍계 신문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탈리아 기자 납치 때와 같이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자 탈레반 측 제안을 또 다시 용인할 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기자가 석방된 후 테러조직과 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미

국과 영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들의 비난을 받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탈레반 죄수 석방은 '회성 거래(one-time deal)'라고 못박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이슬람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

다. 한국외대 이란어과 유달승 교수는 이번 협상이 최소한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피랍된 인질 수가 많아 맞교환 논의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아프간 정부가 인질 교환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살폭탄 대원이 한국인질 감시중

한국인 인질 23명을 납치한 탈레반이 분산 배치한 인질을 감시하는 대원들을 자살 폭탄으로 무장시켰다고 무장세력 관계자가 밝혔다.

탈레반 지휘관인 압둘라 잔의 대변인은 22일 아프간 이슬람 프레스(AIP)에 "한국인들은 서로 다른 몇개의 그룹으로 분산돼 있으며, 각 그룹마다 자살폭탄 대원이 배치돼 있다"며 "이들 대원들은 폭탄이 장착된 조끼를 입고 있다"고 인질 감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는 모험을 감행한다면 인질 처형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군 병력이 진입할 경우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따라서 아프간 군 당국 등이 설부터 구출 작전에 나서 설 경우, 끔찍한 인질 처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그러나 군사작전이 이뤄지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는 한국인들을 비교적 잘 대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압둘라 잔의 대변인은 "우리는 개로 하여금 사람을 물도록 하는 기독교나 유대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 시한이 하루 더 연장된 가운데 23명의 피랍자들은 아프간 가즈니주(州) 카라바흐 지역에 분산 수용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부족 원로 석방 협상 도움될까

유일한 협상 통로...중재에 큰 기대

탈레반에 막강한 영향력...프랑스 성공사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이 22일 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시한을 재연장한 가운데 이번 협상이 성공하려면 현지 부족 원로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인 인질들이 납치된 가즈니 주(州) 카라바흐 부족의 원로들이 아프간 정부를 대신해 납치범과의 협상에 나섰다.

실제로 탈레반은 이날 협상시한을 24시간 연장하면서 "한국이 협상 대표단을 파견하는데다 부족 원로들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도부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dpa통신은 탈레반의 이런 발표가 부족 원로들과 탈레반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프간에서는 앞서 지난 4월 프랑스 인질들이 부족 원로들의 중재 노력으로 석방된 사례가 있다.

당시 탈레반은 인질로 붙잡고 있던 프랑스 구호원 2명 가운데 여성인 쉐린을 석방하면서 칸다하르 주 서쪽 마이완드 지역의 부족 원로들에게 인도했다. 부족 원로들이 인질 석방의 모든 진행을 도맡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탈레반측은 프랑스인 인질 석방 이유에 대해 "(인

질) 여성이기 때문이며 프랑스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 때도 탈레반은 프랑스 구호원들의 석방 조건으로 자국 내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일원으로 주둔 중인 프랑스군의 철수와 아프간 당국에 수감된 탈레반 무장요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따라서 아프간 정부가 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부족 원로들을 중재자로 끌어들이는 것은 당시의 성공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가즈니 주 경찰총수인 알리사 아마드자이는 이날 협상연장 시한이 결정되기 전 "부족 원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탈레반측과 대화를 시작했다"며 "좋은 결과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우리 협상 대표단도 탈레반과의 유일한 협상 통로라 할 수 있는 부족 원로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의 프랑스인 인질 협상에서 탈레반은 여성 1명을 먼저 석방하고 프랑스 대선 결과를 봐가며 나머지의 석방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 만큼 이번에도 부분 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한국인 억류 카라바그는 탈레반 거점지

한국인 인질 23명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주(州) 카라바그는 칸다하르와 함께 탈레반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으로 알려진 위험지역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로부터 북쪽으로 약 50km가량 떨어진 카라바그는 가즈니 주의 주도인 가즈니 시에서 서남쪽으로 56km떨어진 곳에 있다.

인구는 10만9천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일부 보고서에서는 20만을 넘는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정확한 인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크기도 1천800km로 서울시(605.33km)의 3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넓다. 하지만 중심지 카라바그 마을을 제외하면 외곽은 사막과 산악지대로 이뤄져 있다.

이처럼 카라바그는 비교적 면적이 크고 인구수도 많지만 정확한 인구도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주변환경도 사막과 산악지대로 이뤄져 탈레반들이 비밀스러운

활동을 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카라바그와 함께 탈레반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은 칸다하르 주(州)의 칸다하르시. 칸다하르시는 인구 45만명의 아프가니스탄 제2의 도시로 칸다하르 주의 주도다. 옛 소비에트연방이 1979년부터 10년간 점령했다가 물러난 뒤 모하메드 오마르가 이끄는 탈레반이 1994년 8월 이곳을 점령했다.

이에 탄력을 받은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지역 정복에 나서 1996년 5월 집권에 성공했을 정도로 칸다하르는 탈레반 정권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다.

최초 거점지역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탈레반은 정권이 축출된 뒤에도 칸다하르를 근거지로 삼고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때도 북부전선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칸다하르를 비롯한 남부전선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연합뉴스

HANIL EXPRESS

휴망시간

원도 - 광주 무료 서툼버스운행

한일카 웨리 1호
08:30 제주출항/제주일요일휴항
15:30 원도출항/원도일요일휴항

한일카 웨리 2호
17:00 제주출항/제주일요일휴항
12:00 원도출항/원도일요일휴항

제주안방고속도로 한일카-웨리호로

☎ 제주본사 : 011-1524-1000
(http://www.hanilexpress.com)
☎ 서울본사 : 011-1524-1000
☎ 서울고객센터 : 011-6731-7989
☎ 부산본사 : 011-1524-0200